

미합중국
국가안보전략

2025년 11월



백악관

워싱턴

미국 국민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국가와 세계를 재앙과 재난의 위기로부터 되돌려 놓았습니다. 4년간의 무기력, 극단주의, 치명적인 실패 이후, 우리 행정부는 국내외에서 미국의 힘을 회복하고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긴급하고 역사적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행정부도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처럼 극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우리는 미국의 주권적 국경을 회복하고, 우리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미군을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급진적 성별 이념과 깨어 있는 광기를 제거하고, 1조 달러의 투자로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재건하고, 공동 방어에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NATO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의 2%에서 5%로 늘리기로 한 역사적인 약속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여 독립을 되찾았고, 역사적인 관세를 부과하여 핵심 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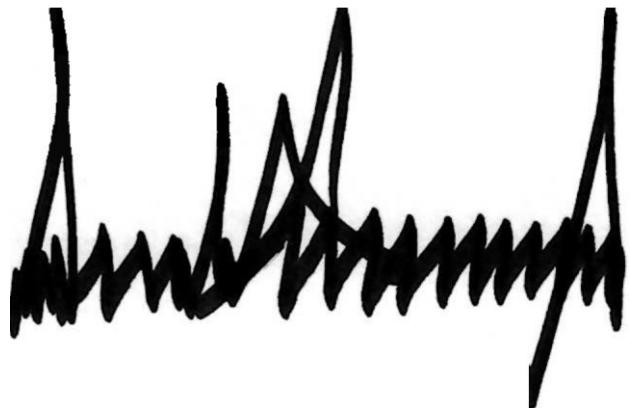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통해 우리는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과 야만적인 외국 쟁단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만에 캄보디아와 태국, 코소보와 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격렬한 충돌 8건을 해결했으며, 가자 전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생존 인질을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은 다시 강하고 존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이룬 놀라운 진전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입니다. 이 문서는 미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국가이자 지상의 자유의 본토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국가 역량의 모든 차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부유하며, 자유롭고, 강대국이며,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2025년 11월

목차

I. 서론 – 미국의 전략이란 무엇인가?

1.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는가
2.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수정

II.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1. 우리가 전반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우리는 세계 안에서 그리고 세계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III.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IV. 전략

1. 원칙
2. 우선순위
3. 지역별 접근
 - A. 미주 대륙
 - B. 아시아
 - C. 유럽
 - D. 중동
 - E. 아프리카

I. 서론 - 미국의 전략이란 무엇인가?

1.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길을 잊었는가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며,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일관되고 집중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미국인들이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왜 시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전략”이란 목표와 수단 사이의 본질적 연결을 설명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다: 이는 원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서 출발하며,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도구나 현실적으로 창출 가능한 도구를 고려한다.

전략은 평가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아무리 가치 있는 국가, 지역, 문제, 대의라도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될 수는 없다. 외교정책의 목적은 핵심 국가 이익의 보호이며, 이것이 본 전략의 유일한 초점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전략들은 부족했다. 이들은 소망이나 바람직한 최종 상태를 나열한 목록에 불과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모호한 진부한 표현만 늘어놓았으며,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을 종종 잘못 판단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 지배가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타국의 사정은 그들의 활동이 우리의 이익을 직접 위협할 때에만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우리 엘리트들은 미국 국민이 국가 이익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글로벌 부담을 영원히 떠안으려는 미국의 의지를 심각하게 오판했다. 그들은 거대한 복지-규제-행정 국가와 동시에 거대한 군사, 외교, 정보, 대외 원조 체계를 유지할 미국의 자금 조달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그들은 글로벌리즘과 소위 '자유 무역'에 엄청나게 잘못된 파괴적인 내기를 걸어, 미국 경제와 군사적 우위의 기반인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텅 비워버렸다. 그들은 동맹국과 협력국들이 방위 비용을 미국 국민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했으며, 때로는 그들의 핵심 이익이지만 우리의 주변적이거나 무관한 쟁돌과 논란에 우리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미국 정책을 국제 기관 네트워크에 끌어두었는데, 그중 일부는 노골적인 반미주의에 의해 움직이고, 다수는 개별 국가 주권을 명백히 해체하려는 초국가주의에 의해 주도된다. 요약하자면, 우리 엘리트들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수단, 즉 미국의 힘과 부, 품위를 지탱해 온 국가적 정체성 자체를 훼손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하고 환영받는 전략 수정

이 모든 것은 필연적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부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올바른 지도력 아래라면 위의 모든 것이 피할 수 있었고, 피해야 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음을 증명했다. 그와 그의 팀은 미국의 위대한 강점을 성공적으로 동원하여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 나라를 위한 새로운 황금기를 열기 시작했다. 미국을 그 길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와 본 문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2)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가용 수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3) 우리는 어떻게 목적과 수단을 실행 가능한 국가안보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II.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1.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장 먼저, 우리는 미국이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공화국으로서 계속 생존하고 안전하기를 원한다. 그 정부는 국민에게 신이 부여한 자연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군사적 공격과 적대적인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나라와 국민, 영토, 경제, 삶의 방식을 보호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간첩 활동, 약탈적 무역 관행, 마약 및 인신매매, 파괴적인 선전 및 영향력 작전, 문화적 전복, 또는 우리 국가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이 포함된다.

우리는 국경과 이민 제도, 그리고 합법적·불법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교통망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주가 단순히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들이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인구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보다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자국이 누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자연 재해를 견디고, 외부의 위협에 저항하며 저지하며,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거나 미국 경제를 교란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국가 인프라를 원한다. 어떤 적대자나 위험도 미국을 리스크에 빠뜨릴 수 없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필요하다면 우리 군의 사상자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승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를 모집, 훈련, 장비, 배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군인이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임무에 확신을 가지는 군대를 원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핵 억지력과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미국 본토를 위한 골든 돔을 포함하여—to 통해 미국 국민, 해외 미국 자산, 그리고 동맹국을 보호하고자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경제를 원한다. 미국 경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실현하며, 상향 이동성을 창출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미국식 삶의 방식의 기반이다. 우리 경제는 또한 우리의 글로벌 위상의 기반이자 군대의 필수 토대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산업 기반을 원한다. 미국의 국가적 힘은 평시와 전시 생산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산업 부문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방위 산업 생산 능력뿐

만 아니라 방위 관련 생산 능력도 필요하다. 미국의 산업적 강점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인 에너지 부문을 원한다. 이는 단순히 미국 경제 성장에 연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미국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문이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기술적으로 진보하고 혁신적인 국가로 남으며, 이러한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지적 재산을 외국으로부터의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미국의 개척 정신은 지속적인 경제적 우위와 군사적 우월성의 핵심 기둥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종교, 문화, 통치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당당할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소프트 파워'는 우리가 우리 나라의 본질적인 위대함과 품위를 믿을 때만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의 정신적·문화적 건강을 회복하고 재활성화하기를 원한다. 이는 없이는 장기적인 안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영웅들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황금기를 기대하는 미국을 원한다.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며, 다음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국민을 원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일자리를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노동이 국가 번영과 개인 및 가정의 안녕에 필수적임을 알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회를 원한다. 이는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을 키우는 강력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수가 증가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2. 우리가 세계에서 그리고 세계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적 역량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략의 초점은 외교정책에 있다.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 이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는 미주 대륙이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을 방지하고 억제할 만큼 합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잘 통치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우리는 미주 대륙 정부들이 마약 테러리스트, 카르텔 및 기타 초국적 범죄 조직에 맞서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미주 대륙이 적대적 외국의 침입이나 핵심 자산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우며, 중요한 공급망을 지원하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는 핵심 전략적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면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부칙"을 주장하고 시행할 것이다;

-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며, 모든 주요 해상 통로의 항행의 자유를 보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외국 행위자들이 미국 경제에 가하는 지속적인 피해를 중단하고 역전시키고자 한다;
- 우리는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유지하는 동맹국을 지원하면서, 유럽의 문명적 자신감과 서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 우리는 적대적 세력이 중동, 그 석유 및 가스 공급원, 그리고 이를 통과하는 초크포인트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막대한 대가를 치르며 우리를 그 지역에 얹매이게 했던 “영원한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 그리고
- 우리는 특히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과 미국 기준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이것들이 바로 미국의 핵심적이고 중대한 국가 이익이다. 다른 이익들도 존재하지만, 이 이익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우리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된다.

III.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은 무엇인가?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 자원, 우위를 보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여전히 유연하게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정치 체제;
- 세계 최대이자 가장 혁신적인 경제체로서, 전략적 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접근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제공한다;
- 달러의 글로벌 준비통화 지위를 포함한 세계 최고의 금융 시스템 및 자본 시장;
-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며 군대에 질적 우위를 제공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혁신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기술 부문;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
- 세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 조약 동맹국 및 파트너를 둔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부러움을 사는 지리적 위치, 우리 반구에서 물리적으로 우세한 경쟁 세력이 없으며 군사적 침공 리스크가 없는 국경, 그리고 광활한 바다로 분리된 다른 강대국들;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 미국 국민의 용기, 의지력, 애국심.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국내 정책을 통해 미국은:

- 역량 중심의 문화를 재확립하고, 우리 제도를 훼손하며 발전을 저해하는 소위 “다양성·평등·포용(DEI)” 및 기타 차별적이고 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있다;
- 성장 및 혁신을 촉진하고 중산층을 강화·재건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서 막대한 에너지 생산 능력을 해방시키고 있다;
- 중산층을 더욱 지원하고 자체 공급망 및 생산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 재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역사적인 감세 및 규제 완화 노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되찾아 주어, 미국을 사업과 자본 투자를 위한 최고의 장소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번영, 경쟁 우위,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신기술 및 초기 과학에 투자하고 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들을 비롯한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미국의 힘과 우월성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다.

IV. 전략

1. 원칙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실용주의적이지만 “실용주의자”가 아니며, 현실적이지만 “현실주의자”가 아니며, 원칙적이지만 “이상주의자”가 아니며, 강경하지만 “매파”가 아니며, 절제되어 있지만 “비둘기파”가 아니다. 이는 전통적인 정치 이념에 기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유리한 것, 즉 두 단어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동기부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산을 확고히 했다. 역사적인 아브라함 협정으로 첫 임기 동안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데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불과 8개월 만에 협상 능력을 활용하여 전 세계 8개 충돌 지역에서 전례 없는 평화를 확보했다. 그는 캄보디아와 태국, 코소보와 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평화를 중재했으며, 모든 생존 인질이 가족에게 돌아온 채 가자 전쟁을 종식시켰다.

지역 충돌이 대륙 전체를 휩쓸 글로벌 전쟁으로 번지기 전에 차단하는 것은 최고사령관의 관심을 받을 만하며, 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불타는 세계, 전쟁이 우리 해안까지 다가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전통적 외교, 미국의 군사력,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핵 보유국들 사이의 분열의 불씨와 수세기 동안의 증오로 인한 폭력적 전쟁을 정밀하게 진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정책·국방정책·정보 정책이 다음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입증했다:

- 국가 이익의 집중적 정의 – 적어도 냉전 종식 이후, 행정부들은 종종 미국의 “국가 이익” 정의를 확장하여 거의 모든 문제나 노력이 그 범위 밖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 힘을 통한 평화 – 힘은 최고의 억제력이다. 미국 이익을 위협하는 데 충분한 억지력을 느끼는 국가나 행위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강함은 평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의 강함을 존중하는 당사자들은 종종 우리의 도움을 구하며, 충돌 해결과 평화 유지 노력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며, 사회의 문화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

- **비개입주의 성향** – 독립선언문에서 미국의 건국자들은 타국 문제에 대한 비개입주의를 명확히 선호하며 그 근거를 분명히 했다: 모든 인간이 신이 부여한 동등한 자연권을 지닌 것처럼, 모든 국가는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칙”에 따라 서로에 대해 “분리되고 평등한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처럼 다채롭고 다양한 국익을 가진 국가에게 비개입주의를 엄격히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정당화된 개입의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
- **유연한 현실주의** – 미국의 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추구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것에 대해 현실적일 것이다. 우리는 세계 각국과 우호적 관계 및 평화로운 상업적 관계를 추구하되, 그들의 전통과 역사와 크게 다른 민주주의나 기타 사회적 변화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 평가에 따라 행동하거나, 통치 체제와 사회가 우리와 다른 국가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모순되거나 위선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동시에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우방국들에게 우리의 공유된 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 **국가의 우위** – 세계의 기본적 정치 단위는 국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국가들이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세계는 가장 잘 작동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그들 역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지지하며, 가장 침투적인 초국가적 기구들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침해를 반대하며, 이러한 기관들이 개별 주권을 방해하기보다 지원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개혁하는 것을 지지한다.
- **주권과 존중** – 미국은 당당히 자국의 주권을 보호할 것이다. 여기에는 초국가적·국제 기구에 의한 주권 침식 방지, 외국 세력이나 단체의 미국 내 담론 겸열 또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 권리 제한 시도 차단, 미국 정책을 좌우하거나 외국 충돌에 개입시키려는 로비 및 영향력 행사 차단, 그리고 미국 내 외국 이익에 충성하는 투표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미국 이민 제도의 냉소주의 조작 방지가 포함됩니다. 미국은 외부 간섭 없이 세계에서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 **균형된 힘** – 미국은 어떤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지배적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배적인 적대 세력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및 지역적 힘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 지배라는 불행

한 개념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는 타국의 글로벌, 경우에 따라 지역적 지배를 차단해야 한다. 이는 세계의 모든 강대국과 중견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피와 재물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크고 부유하며 강력한 국가들의 과도한 영향력은 국제관계의 영원한 진리이다. 이 현실은 때로 공동 이익을 위협하는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을 수반한다.

- 노동자 중심의 미국 정책 – 미국의 정책은 단순한 성장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이 될 것이며, 우리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우리는 번영이 상위층에 집중되거나 특정 산업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기반을 두고 널리 공유되는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 공정성 – 군사 동맹에서 무역 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역사적 선의를 악용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감당할 수도 없다. 우리가 동맹국들이 부유하고 역량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동맹국들도 미국이 부유하고 역량 있는 국가로 남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하여, 수십 년간 미국의 훨씬 더 많은 지출로 인해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
- 역량과 능력주의 – 미국의 번영과 안보는 역량의 개발과 증진에 달려 있다. 역량과 능력 주의는 우리 문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최고의 미국인들이 채용되고, 승진하며, 존중받는 곳에는 혁신과 번영이 뒤따릅니다. 역량이 파괴되거나 체계적으로 억압된다면, 우리가 당연시하는 복잡한 시스템들—인프라부터 국가안보, 교육 및 연구에 이르기까지—은 기능을 멈출 것이다. 능력주의가 억눌린다면, 과학, 기술, 산업, 국방, 혁신 분야에서 미국의 역사적 우위는 사라질 것이다. 역량과 실적을 특혜받는 집단 지위로 대체하려는 급진적 이념의 성공은 미국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글로벌 인재'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미국 노동자를 위협하는 글로벌 인력 유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능력주의가 악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원칙과 행동에서 미국과 미국인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

2. 우선순위

-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 – 한 국가가 국경 안으로 누구를, 얼마나, 어디에서 받아들이느냐는 필연적으로 그 나라의 미래를 정의할 것이다. 주권을 가진 모든 국가는 자신의 미래를 정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역사적으로 주권 국가들은 통제되지 않은 이민을 금지했으며,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 외국인에게만 극히 드물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경험은 이 지속적인 지혜를 입증한다. 전 세계 국가들에서 대규모 이민은 국내 자원을 고갈시키고, 폭력 및 기타 범죄를 증가시키며,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노동 시장을 왜곡하며, 국가안보를 훼손해왔다. 대규모 이민 시대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국경 보안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다. 우리는 무분별한 이민뿐 아니라 테러, 마약, 간첩 활동, 인신매매와 같은 국경을 넘는 위협으로부터도 국가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미국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국경 통제는 주권 공화국으로서 미국의 생존에 근본적이다.
- 핵심 권리와 자유의 보호 – 미국 정부의 목적은 미국 시민의 신이 부여한 자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부처와 기관에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권한은 “급진화 방지”, “민주주의 보호” 또는 그 밖의 어떤 구실을 내세워도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권한이 남용될 때와 장소에서는, 남용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우리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운영할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권리이다. 이러한 원칙을 공유하거나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그 원칙이 문자 그대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준수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유럽, 영어권 국가들, 그리고 민주주의 세계의 나머지 지역, 특히 우리 동맹국들 사이에서 핵심적 자유에 대한 엘리트 주도적, 반민주적 제한에 반대할 것이다.
- 부담 분담과 부담 전가 –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수많은 동맹국과 파트너 중에는 자국 지역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고 집단 방어에 훨씬 더 기여해야 할 부유하고 선진화된 국가들이 수십 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약속하는 헤이그 공약으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세웠으며, NATO 동맹국들은 이를 지지했고 이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동맹국들에게 각자의 지역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이어가며, 미국은 우리 정부가 주관자이자 지원자로서 부담 분담 네트워크를 조직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담이 분담되고 모든 노력이 더 넓은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이 모델은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

국들과 부담을 공유하며, 장기적 안정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타겟팅 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을 통해 미국은 과거 노력을 약화시켰던 과도한 확장 및 분산된 초점을 피하면서 적대적·파괴적 영향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발적으로 인근 지역의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수출 통제를 미국의 기준에 맞추는 국가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업적 문제에 대한 우대 조치, 기술 공유, 방위 물자 조달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평화를 통한 재정렬**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화 협정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주변 지역 및 국가에서도, 안정성을 높이고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역을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정렬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필요한 지원은 대통령 외교로 귀결되며, 이는 유능한 지도력 아래에서만 우리 위대한 국가가 수용할 수 있다. 그로 인한 이익—장기화된 충돌의 종식, 생명의 구원, 새로운 우정의 형성—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시간과 관심의 비용을 훨씬 능가 할 수 있다.
- **경제 안보** –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이므로 우리는 다음에 중점을 두고 미국 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균형 잡힌 무역** – 미국은 무역 관계 재조정, 무역 적자 축소, 수출 장벽 반대, 미국 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텁핑 및 기타 반경쟁적 관행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상호 이익과 존중을 바탕으로 교역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협정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반드시 우리 노동자, 우리 산업,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여야 한다.
 - **핵심 공급망 및 자재 확보** – 알렉산더 해밀턴이 건국 초기에 주장했듯이, 미국은 국가 방위나 경제에 필수적인 원자재부터 부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핵심 구성 요소를 외부 세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삶의 방식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물품에 대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접근권을 재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심 광물 및 원자재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약탈적 경제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정보 커뮤니티는 전 세계 주요 공급망과 기술 발전을 모니터링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취약점과 위협을 이해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재산업화** – 미래는 제조업의 것이다. 미국은 경제를 재산업화하고, 산업 생산을 국내로 되돌리며, 미래를 정의할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리 경제와 노동

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유치할 것이다. 우리는 관세의 전략적 활용과 신기술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이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광범위한 산업 생산을 촉진하고, 미국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며, 국가가 핵심 제품이나 부품에 대해 현재 또는 잠재적 적국에 다시는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 **방위산업 기반 재건** –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는 강력하고 유능한 방위산업 기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최근 충돌에서 드러난 저비용 드론과 미사일 대비 방어에 필요한 고비용 시스템 간의 거대한 격차는 우리가 변화하고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저비용으로 강력한 방어 체계를 혁신하고, 가장 유능하고 현대적인 시스템과 탄약을 대규모로 생산하며, 방위산업 공급망을 국내로 재유입하기 위한 국가적 동원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전투원들에게 대부분의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저비용 무기부터 정교한 적과의 충돌에 필요한 최첨단 고성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의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동맹국 및 파트너의 산업 기반 재활성화를 장려할 것이다.
- **에너지 우위** –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회복하고 필수 핵심 에너지 부품의 국내 생산을 재개하는 것은 최우선 전략적 과제이다.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는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재산업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순 에너지 수출 확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적대 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우리 영토 방어 능력을 보호하며, 필요할 때와 장소에서 우리의 힘을 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유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미국을 위협하며 적대 세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앙적인 “기후 변화” 및 “넷 제로” 이념을 거부한다.
- **미국의 금융 부문 우위 유지 및 확대** –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금융 및 자본 시장을 자랑하며, 이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추진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과 도구를 제공하는 미국 영향력의 기둥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도적 지위는 당연시될 수 없다. 우월성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역동적인 자유 시장 체제와 디지털 금융 및 혁신 분야의 리더십을 활용하여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가장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며 안전하며 세계의 부러움을 사도록 해야 한다.

3. 지역

이러한 문서들은 세계의 모든 지역과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는 어떤 누락도 맹점이나 무시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문서들은 부풀려지고 초점이 흐려지며, 전략이 가져야 할 본질과 정반대가 된다.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중요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민족, 지역, 국가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모든 측면에서 역사상 가장 관대한 국가이다—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지역과 모든 문제에 동등하게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다.

국가안보 정책의 목적은 핵심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일부 우선순위는 지역적 한계를 초월한다. 예를 들어, 그 자체로는 덜 중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활동이 우리의 긴급한 주의를 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도약하는 것은 실수다.

A. 미주 대륙: 면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보충 원칙

수년간의 방치 끝에, 미국은 미주 대륙에서의 미국의 우월성을 회복하고, 우리 국토와 이 지역 전역의 주요 지리적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면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비(非)미주 대륙 경쟁국들이 우리 미주 대륙에 군대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다. 면로 독트린에 대한 이 '트럼프 보충 원칙'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상식적이고 강력한 미국 권력과 우선순위의 회복이다.

미주 대륙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동원 및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미주 대륙 내 기존 우방국들을 동원하여 이민을 통제하고 마약 유입을 차단하며 육상과 해상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육성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국가가 미주 대륙에서 가장 선호되는 경제·안보 협력국으로서의 매력을 높여 확장할 것이다.

동원

미국 정책은 해당 파트너들의 국경을 넘어 지역 내 용인 가능한 안정성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주도국들을 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불법적이고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이민을 차단하고, 카르텔을 무력화하며, 균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지방 민간 경제를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광범위하게 부합하는 지역 정부, 정당, 운동을 포용하고 장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관점이 다르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우리와 협력하고자 하는 정부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미주 대륙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네 가지 명백한 조치를 의미한다:

- 우리 반구의 긴급한 위협, 특히 본 전략에서 명시한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군사 배치 재조정, 그리고 최근 수십 년 또는 수년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전장으로부터의 철수;
- 해상 통로 통제, 불법 및 기타 원치 않는 이민 차단,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 감소, 위기 시 주요 경유로 통제를 위한 해안경비대 및 해군 배치 강화;
-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카르텔을 무력화하기 위한 타겟팅 배치, 필요 시 치명적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법 집행 중심 전략을 대체할 것; 그리고
-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접근권 확보 또는 확대.

미국은 관세와 상호 무역 협정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여 자국 경제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 외교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목표는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강력하고 정교해진 미주 대륙이 미국 상업 및 투자에 점점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 반구 내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면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경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과 파트너 간에 형성된 연계는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며, 동시에 비(非)미주 대륙 경쟁자들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상업 외교를 우선시하면서도 우리는 무기 판매부터 정보 공유, 합동 훈련에 이르기까지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화장

미국이 현재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우리는 해당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그들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다.

미주 대륙은 미국이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개발해야 할 수많은 전략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웃 국가들과 우리 자신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 국가안보회의는 즉시 강력한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하여 정보기관의 분석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미주 대륙의 전략적 요충지와 자원을 식별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이를 보호하고 지역 파트너들과 공동 개발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비(非)미주 대륙 경쟁국들은 현재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미래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우리 반구에 크게 진출해 왔다. 이러한 침투를 심각한 저지 없이 허용하는 것은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또 다른 중대한 전략적 실수이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미국은 미주 대륙에서 탁월한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필요할 때와 장소에 자신 있게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의 동맹 조건과 어떠한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은 군사 시설, 항구, 핵심 인프라 통제권부터 광범위하게 정의된 전략적 자산 구매에 이르기까지 적대적 외부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달려야 한다.

일부 라틴아메리카 정부와 특정 외국 세력 간의 정치적 유착 관계로 인해 일부 외부 영향력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정부는 이념적으로 외국 세력과 결탁한 것이 아니라, 낮은 비용과 규제 장벽 감소 등 다른 이유로 그들과 거래하는 데 매력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미주 대륙에서 외부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성공해 왔는데, 이는 표면상 '저비용'으로 포장된 외국 원조에 스파이 활동, 사이버 보안, 부채 함정 등 수많은 숨겨진 비용이 내재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가능했다. 우리는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해당 원조를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주 대륙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은 자국 상품, 서비스, 기술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선택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타국 원조와 달리 특정 조건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승인 및 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최우선 협력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국가가 직면해야 할 선택은 미국이 주도하는 주권 국가와 자유 경제의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영향력 아래 놓인 평행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이다.

이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미국 공무원은 해로운 외부 영향력의 전체적 양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동반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 반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 대륙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려면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모든 대사관은 해당국 내 주요 비즈니스 기회, 특히 대규모 정부 계약을 인지해야 한다. 이들 국가와 교류하는 모든 미국 정부 관료는 자신의 업무 일부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을 지원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해당 지역 내 미국 기업을 위한 전략적 인수 및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중소기업청, 국제개발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밀레니엄 챌린지 공사 등 모든 미국 정

부 금융 프로그램의 평가 대상으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지역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여 확장 가능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광물 접근성에 투자하며, 미국의 암호화 및 보안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존 및 미래 사이버 통신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미국 정부 기관들은 해외에서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일부 비용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미국은 또한 타겟 과세, 불공정 규제, 재산 몰수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저지하고 역전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고 따라서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협정 조건은 우리 기업에 대한 단독 공급 계약이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외국 기업들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아시아: 경제적 미래를 쟁취하고 군사적 대립을 방지하라

강자의 입장에서 주도하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년 이상 지속된 잘못된 가정, 즉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장려하며, 제조업을 중국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중국이 소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진입하도록 돋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단번에 뒤집었다. 그러한 가정은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은 부유해지고 강력해졌으며, 그 부와 힘을 상당한 이점으로 활용했다. 양당 정권의 4개 행정부에 걸친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의 전략을 의도적으로 방조하거나 현실을 부정했다.

인도와 태평양 지역은 이미 구매력 평가 기준(PPP)으로 세계 GDP의 거의 절반, 명목 GDP 기준으로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비중은 21세기 동안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세기의 핵심 경제·지정학적 격전지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번영하려면 우리는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순방 중 주요 협정에 서명하여 우리의 강력한 상업·문화·기술·방위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프트 파워’, 그리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이익을 제공해 온 역사적 실적을 보유한 막대한 자산을 지니고 있어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장래에 걸쳐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 궁극적인 이해관계

1979년 중국 경제가 세계에 재개방된 이래 양국 간 상업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성숙하고 부유한 경제체와 세계 최빈국 중 하나 간의 관계로 시작된 이 관계는 최근까지도 미국의 입장이 과거의 가정들에 뿌리를 둔 채로 남아 있었음에도, 이제는 거의 동등한 수준의 국가들 간의 관계로 변모했다.

중국은 2017년 시작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장악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향후 수십 년간 가장 치열한 경제 전쟁터가 될 저소득·중소득 국가(1인당 GDP 13,800달러 이하)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중국의 저소득국 수출은 두 배로 증가했다. 미국은 멕시코를 포함한 12개국에 위치한 중개업체와 중국계 공장을 통해 중국산 상품을 간접적으로 수입한다. 현재 중국의 저소득국 수출 규모는 미국 수출의 거의 4배에 달한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당시 중국의 대미 수출은 GDP의 4%를 차지했으나, 이후 GDP의 2%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대리국을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상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은 균형을 유지하며 비민감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이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베이징과의 진정한 상호 이익적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지속할 수 있다면, 2025년 현재 30조 달러 규모의 경제가 2030년대에는 40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며, 이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에 우리를 놓을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경제 활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미국의 억지력이 보다 규율 있는 경제 행동을 위한 여지를 열어주고, 보다 규율 있는 경제 행동이 장기적으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결합된 접근 방식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이 있다.

첫째, 미국은 어떠한 국가나 출처로부터든 우리 경제와 국민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 이는 다음을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약탈적이며 국가가 주도하는 보조금 및 산업 전략;
- 불공정한 무역 관행;
- 일자리 파괴 및 산업 쇠퇴;
- 대규모 지적 재산권 도용 및 산업 스파이 활동;

- 미네랄 및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핵심 자원 확보에 리스크를 미치는 공급망 공격;
-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유행을 부추기는 펜타닐 전구체 수출; 그리고
- 선전, 영향력 작전 및 기타 형태의 문화적 전복 행위.

둘째, 미국은 조약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30조 달러 규모 국가 경제에 추가로 35조 달러의 경제력을 더해(합쳐서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구성함) 약탈적 경제 관행을 견제하고, 우리의 통합된 경제력을 활용하여 세계 경제에서의 우위를 지키며 동맹국 경제가 경쟁국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인도와의 상업적(기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뉴델리가 호주, 일본, 미국과의 지속적인 4자 협력("쿼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단일 경쟁국에 의한 지배를 방지하는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행동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최첨단 군사 및 이중용도 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우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에 투자해야 하며, 특히 미국의 우위가 가장 강력한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한다. 여기에는 해저, 우주, 핵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미래를 결정할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자율 시스템 등 기타 분야와 이러한 분야를 뒷받침할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민간 부문과의 핵심적 협력 관계는 미국 네트워크(중요 인프라 포함)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감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실시간 탐지, 책임 규명 및 대응(즉, 네트워크 방어 및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미국 기술 부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 미국 천연자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상당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동맹 체계를 경제 블록으로 통합하는 것 외에도, 미국은 향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대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민간 주도 경제 참여를 실행해야 한다.

미국 우선 외교는 글로벌 무역 관계의 재균형을 추구한다.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및 기타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게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만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수출국들도 중산층 국가들을 제한적이지만 성장하는 수출 시장으로 삼을 수 있다.

중국 국영 및 국책 기업들은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탁월하며, 중국은 무역 흑자 약 1조 3천 억 달러를 교역 상대국에 대한 대출로 재투자해 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른바 '글로벌 남부'를 위한 공동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조차 하지 못했으나, 함께 막대한 지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등은 7조 달러의 순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 금융 기관들은 총 1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임무 확대(mission creep)로 인해 효율성이 약화되었지만, 현 행정부는 리더십을 활용해 이들 기관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미국을 세계와 차별화하는 요소—개방성, 투명성, 신뢰성, 자유와 혁신에 대한 헌신,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미국을 최우선 글로벌 파트너로 만들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테크 분야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는 파트너들에게 첨단 기술 협력, 방산 구매, 자본 시장 접근권 등 일련의 유인책을 제시하여 결정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5월 폐르시아만 국가 국빈 방문은 미국 기술의 힘과 매력을 입증했다.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걸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며 협력 관계를 심화시켰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과 인도 등 파트너국들을 동원해 미주 대륙에서의 공동 입지를 공고히 하고 개선해야 하며,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금융과 기술 분야의 비교우위를 활용해 협력국들과 수출 시장을 구축하는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 파트너들은 더 이상 과잉 생산 능력과 구조적 불균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며, 대신 전략적 협력과 연계된 관리형 협력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미국의 장기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저소득 국가들이 자체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고 자국 통화를 달러에 더 밀접하게 연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달러의 세계 준비통화로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여전히 정부 체제와 역동적인 자유 시장 경제이다. 그러나 우리 체제의 우위가 당연히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안보 전략은 필수적이다.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유리한 재래식 군사 균형은 전략적 경쟁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다. 대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 지배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대만이 제2도련선(第二島鏈線)로의 직접 접근로를 제공하고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두 개의 별개 전구로 분할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이 매년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관련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우리는 또한 대전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대만 협협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제1 도련선(島鏈線)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다. 동맹국들은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 도련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에게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비 증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침략 억제 능력 구축을 촉구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제1 도련선 해상안보 문제를 상호 연계시키면서, 대만 점령 시도나 우리에게 불리한 군사적 균형을 통해 대만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저지할 미국과 동맹국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관련된 안보 과제는 경쟁국 중 어느 한 쪽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이다. 이는 잠재적 적대 세력이 세계 최대의 상업 항로 중 하나에 통행료 체계를 부과하거나, 더 나쁘게는 마음대로 폐쇄 및 재개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두 결과 모두 미국 경제와 광범위한 미국의 이익에 해로울 것이다. 이러한 항로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통행료 없이 운영하며 특정 국가의 자의적 폐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군력을 비롯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추가 투자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도부터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부담 분담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 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신규 역량 포함)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한 서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만 및 호주와의 관계에서는 국방비 증액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계 태세, 방위 산업 기반의 재건, 우리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군사 투자 확대, 장기적인 경제·기술 경쟁에서의 승리 등이 필요하다.

C. 유럽의 위대함 증진

미국 관리들은 유럽의 문제를 군사비 지출 부족과 경제 침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는 일리가 있지만, 유럽의 진정한 문제는 더 깊다.

유럽 대륙은 창의성과 근성을 약화시키는 국가적 및 초국가적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25%에서 현재 14%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쇠퇴는 문명 소멸이라는 현실적이고 더 뚜렷한 전망에 가려져 있다. 유럽이 직면한 더 큰 문제들에는 정치적 자유와 주권을 훼손하는 유럽연합(EU) 및 기타 초국가적 기구의 활동, 대륙을 변모시키고 분쟁을 야기하는 이민 정책, 자유 발언에 대한 검열과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 급감하는 출산율, 국가 정체성과 자존감 상실이 포함된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이내에 유럽 대륙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유럽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남을 만큼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전혀 불분명하다. 이들 국가 중 다수는 현재의 길을 더욱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이 유럽다움을 유지하고, 문명적 자신감을 되찾으며, 규제에 의한 질식이라는 실패한 접근을 포기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자신감 부족은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유럽 동맹국들은 핵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측면에서 러시아에 비해 상당한 하드 파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는 현재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많은 유럽인들은 러시아를 생존 위협으로 간주한다. 유럽과 러시아 관계 관리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친 전략적 안정 조건을 재구축하고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간 충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상당한 미국의 외교적 개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 행위 신속한 종식을 협상하는 것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다. 이는 유럽 경제를 안정화하고, 전쟁의 의도치 않은 확대나 확전을 방지하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구축하고, 우크라이나가 생존 가능한 국가로 재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설적으로 유럽, 특히 독일의 대외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독일 화학 기업들은 자국에서 확보할 수 없는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해 중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가공 시설을 건설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안정한 소수 정부에 의존하며 전쟁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은 유럽 관료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들 정부 다수는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유린하고 있다. 대다수 유럽인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열망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주로 해당

정부들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정치적 위기에 갇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이는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유럽은 전략적·문화적으로 미국에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대서양 양안 무역은 글로벌 경제와 미국 번영의 기둥 중 하나다. 제조업부터 기술, 에너지에 이르는 유럽 산업은 여전히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유럽은 첨단 과학 연구와 세계적 문화 기관의 본고장이다. 유럽을 포기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에 역행하는 자멸적 행위가 될 것이다.

미국 외교는 진정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유럽 각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를 당당히 기념하는 가치를 계속 옹호해야 한다. 미국은 유럽의 정치적 동맹국들이 이러한 정신의 부활을 촉진하도록 독려하며,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확대는 확실히 큰 낙관론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의 궤도를 바로잡도록 돋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어떤 적대국도 유럽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함께 협력하기 위해 강력한 유럽이 필요하다.

미국은 당연히 유럽 대륙, 물론 영국과 아일랜드에도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 국가들의 성격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유능하며 자신감 넘치는 민주적 동맹국들이 안정과 안보의 조건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위대함을 되찾고자 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늦어도 수십 년 안에 특정 NATO 회원국들의 다수가 비유럽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들이 세계 속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나 미국과의 동맹을 NATO 현장에 서명한 국가들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볼지는 미지수이다.

유럽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정책은 다음을 우선시해야 한다:

- 유럽 내 안정 조건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재구축;
- 유럽이 적대 세력의 지배 없이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등,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집단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유럽 국가들 내에서 현재의 유럽 궤도에 대한 저항 세력 육성;
- 유럽 시장에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개방 및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
- 상업적 유대, 무기 판매, 정치적 협력, 문화·교육 교류를 통해 중부, 동부, 남부 유럽의 전한 국가들을 육성하는 것;
- NATO가 영구적으로 확장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종식시키고, 그러한 현실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 유럽이 중상주의적 과잉 생산 능력, 기술 절도, 사이버 스파이 활동 및 기타 적대적 경제 관행에 맞서 행동하도록 장려하는 것.

D. 중동: 부담 전환, 평화 구축

적어도 반세기 동안 미국 외교정책은 다른 모든 지역보다 중동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중동은 수십 년간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급처였으며, 초강대국 경쟁의 주요 무대였고, 전 세계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충돌이 만연했으며 심지어 우리 해안까지 위협했다.

오늘날, 적어도 그 중 두 가지 역학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에너지 공급원은 크게 다각화되었으며, 미국은 다시 순수출국이 되었다. 초강대국 간 경쟁은 강대국 간 세력 다툼으로 바뀌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지역 동맹국, 다른 아랍 파트너국,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성공적으로 재활성화함으로써 미국은 여전히 가장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충돌은 여전히 중동의 가장 골치 아픈 역학 관계이지만, 오늘날 이 문제는 헤드라인이 암시하는 것 보다 덜 심각하다. 이 지역 최대 불안정 요인인 이란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과 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은 여전히 까다롭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휴전과 인질 석방 덕분에 보다 영구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마스의 주요 후원 세력들은 약화되거나 물러났다. 시리아는 여전히 잠재적 문제지만, 미국, 아랍, 이스라엘, 터키의 지원으로 안정화되어 지역 내 핵심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행정부가 제한적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거나 완화하고 미국 에너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이 중동에 집중해 온 역사적 이유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대신 이 지역은 점차 석유·가스를 넘어 원자력, 인공지능, 방위 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제 투자의 원천이자 목적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중동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확보부터 아프리카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 우호적이고 개방된 시장 개발 기회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추진할 수도 있다.

중동 파트너들은 급진주의 퇴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 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계속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특히 걸프 군주국들을 상대로 전통과 역사적 통치 형태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잘못된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외부에서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개혁을 장려하고 환영해야 한다. 중동과의 성공적인 관계의 핵심은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면서도 해당 지역과 지도자, 국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미국은 걸프 에너지 공급이 적대 세력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 상태를 유지하도록, 홍해가 항해 가능하도록, 해당 지역이 미국의 이익이나 본토를 겨냥한 테러의 온상이나 수출 기지가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항상 핵심적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수십 년간 무익한 ‘국가 건설’ 전쟁 없이도 이 위협에 이념적·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 협정을 해당 지역 내 더 많은 국가들과 이슬람 세계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는 데 명백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동이 장기적 계획과 일상적 실행 모두에서 미국 외교정책을 지배하던 시대는 다행히 끝났다. 중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거처럼 지속적인 골칫거리이자 임박한 재앙의 잠재적 원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동은 협력과 우정, 투자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환영하고 장려해야 할 추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샤름 엘 셰이크에서 아랍 세계를 평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해 결집시킨 능력은 미국이 마침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 아프리카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자유주의 이념을 제공하고, 이후 확산하는 데 집중해왔다. 미국은 오히려 선별된 국가들과 협력하여 충돌을 완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를 조성하며, 외국 원조 패러다임에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잠재적 경제 가능성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및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여 기회는 진행 중인 충돌(예: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수단)의 해결 협상, 새로운 충돌(예: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소말리아)의 예방, 그리고 원조 및 투자 접근 방식(예: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 법)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재부상하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활동에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인 미국의 주둔이나 공약을 피해야 한다.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원조 중심 관계에서 무역 및 투자 중심 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선호해야 한다. 투자 수익률이 높은 아프리카 내 미국의 즉각적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 부문과 핵심 광물 개발이 포함된다. 미국이 지원하는 원자력,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기술 개발은 미국 기업에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및 기타 자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